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마16:13-18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흘렀다. 초기 미국 선교사들, 복음 선포, 교육, 의료, 인재 양성,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일제 식민지 거치며 1948년 8월 15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이승만에 의해 성정에 손을 얹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https://yadmin3392.tistory.com/8949065>

초기 기독교는 미국과 선교사들의 영향

해방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가치에 토대를 둔 국가 재건을 주장한 요인은 기독교국가로 알려진 미국을 통해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생각, 기독교가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인식, 3영수를 비롯하여 정치지도자들의 기독교적 배경, 구미 여러 기독교 배경의 나라들이 보여준 사례, 우호적인 미군정, 공산주의에 대한 위기감이다.

6.25 전쟁으로 기독교인을 포함한 반공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전세의 변화에 따라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을 감행하였고 이 전쟁은 신앙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남한의 교회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반공적신앙과 개인의 생존을 위한 현세구복적인 신앙이 강조되는 현상을 낳았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

1960-80년대는 한국기독교가 유례없는 양적 성장을 이룩한 시기, 교회와 교인의 수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

1993년도 한국종교사회연구소통계에 의하면 교회 수는 1950년에 3,114개에서 1990년에 35,819개로 증가, 40년 동안 교회수가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마도 지금은 5만 여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90년대에 들어서 그 기세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중단되었다. 교세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교파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팔복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오순절 교회(하나님의 성회)였다.

급성장한 교회의 활력과 자신감은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했던 84년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달했다. 그 뒤 90년대에는 교인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90년대 중반에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수가 약 861만이었었는데 95년에 비하여 14만 명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75%까지 성장률을 보인 천주교와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었다.

교회성장의 사회적 배경

70년대 경제 개발은 팔복할 만한 외형적인 성장은 계층 구조를 피리미드형으로 경직시켰으며 계층구조의 아랫부분에 놓이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증대되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불만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할 형편이었다.

도시 속에서 소외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에게 종교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좋은 장이 되기 마련이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여 근대적 개인주의와 잘 어울렸던 기독교는 한국에서도 전통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불교, 유교, 무교보다 도시인들에게 더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60년대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나 불교뿐 아니라 여러 신흥종교들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가운데 현세적인 복을 약속한 종교나 교파일수록 더 크게 성장하였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공하도록 동기유발하며 그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약속했던 교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사고, 성공의 복음, 풍요의 복음 등 자본주의화 된 축복의 메시지는 이 시기에 크게 번창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였다. 대표적인 교단은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현시대 교회

해방 전후 약 7-80년 동안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많은 병폐를 안게 되었다.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적극적인 사고 성공의 복음, 풍요의 복음(기복 신앙 (*, 잘잘법 목사들), 오순절 은사 신비주의(방언, 신유, 축사, 신사도, 명상, 요가, (*), 자유주의 사조(동성애(*), LGBT,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

의 지지, 기독교 방송이라는 CBS를 보면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새벽기도(특새)(*), 철야기도, 고성방가, 교회를 빌려 주려 하지 않는다.

목사에 대한 세간의 눈이 곱지 않다. 세습, 성추행, 횡령, 사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이란 교과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와 성도 둘 다 책임이 있다. 오늘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성경적인 교회라 무엇인가, 왜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대로 하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Bible believer로 살다가 죽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문제를 보고 깨달아 버릴 것을 버히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교회의 현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구원받고나서는 교회 때문에 힘들어 한다. 참으로 큰 모순이다. 가나안 성도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자체는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목사는 싫어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경건해야 할 목사들이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며 또 이단이나 사교들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에 다녀 봤지만 염증을 느끼고 지금은 마음속으로만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다.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성경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 교회 형성

특징 행2:47,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은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기독교(교회)를 창시하셨을 때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 길을 쉽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현 시대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떠나 심히 뒤틀려 있다.

심지어 교과서인 성경마저도 샤머니즘과 이교 사상으로 심히 왜곡되어 있다(귀신, 음부 등의 비기독교 단어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교과서를 손에 쥐고 바르게 보면 실행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일단 다음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치면 성경적 기독교(교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문제

1. 구약과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제사장이 누구인가?

구약 시대, 하나님, 죄인, 그 사이에 인간 중재자인 제사장이 들어간다.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고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약 시대 성정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제사장이 되었다. 전 성도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벧전2:9)

그런데 여전히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는 인간 제사장이 없다. 천주교회는 여전히 priest (*)

2. 신약 시대의 목사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는 목사의 직무(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들 가운데 한 형제이다. 교회에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바른 데로 이끄는 일을 하며 목사와 성도들은 직무가 다를 뿐이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엡4:11; 딤후3:1-7; 히2:11-13; 벧전2:9-10).

나는 당신들과 클래스가 다르다. 당신들은 평신도이다. (*)

3. 목사는 성경을 읽고 말씀 자체를 강해해야 한다.

현 시대의 문제, 성경 구절 하나 읽고는 신문 이야기 등 판 소리로 시간 다 소비함, 설교도 20분 록펠러, 제이 씨 페니, 링컨, 콜게이트, 마더 테레사, 성 프란시스 등의 이야기나 판에 박힌 예화 혹은 위인전으로 설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 선포에 있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등으로부터 신약 시대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관상 기도, QT, 각종 은사주의 프로그램(알파 코스 등) 등의 인위적 성공/성취 프로그램은 성도들을 영적 기근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이다(롬10:17; 고전1:18-25).

목사들이 사도가 되어 아말감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어 준다고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마귀 짓을 하면 안 된다.

예배 처소 문제

구약 시대, 예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되었다.

죄를 지으면 거기로, 제사장에게 나가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신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무궁토록 거한다. 그래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고전6:19,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이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과도하게 건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목사는 자연히 제사장이 된다.

이런 것은 구약 시대의 일이다.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일은 한국에만 있는 일이다(마16:18; 고전6:19; 고후6:16-18; 딤후3:15). 모임의 장소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필요하면 짓되 최소한의 부담으로 실용적으로 지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auditorium으로, 학교 건물처럼 저렴하게 실용적으로

내 의자를 보라(*)

예배의 목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주일 성수, 특별새벽기도, 십일조, 일천 번제 헌금, 큰 액수의 헌금을 통해 만사형통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허탄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게 공통적으로 있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지낸다(마19:24; 고전10:13; 고후12:7-10; 딤후4:20; 약5:14; 히11:13).

한국 기독교의 부흥, 번영복음, 기복주의, 이것은 성경의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들만 약속하셨다.

헌금의 동기와 내용이 달라야 한다

신약 시대의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다. 강제성을 띤 십일조, 맥추 감사 헌금 등은 구약 시대에 신정 정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부과된 세금과 같은 것이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교회에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기 바란다. 헌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액수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불신행위로서 연약한 성도들을 짓누르는 악한 일이다.

교회에는 자발적인 헌금과 일시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 헌금 외에 다른 헌금은 없다(롬10:2-4; 고전16:1-2; 고후9:6-7).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지정, 감사 헌금 등은 있다.

우리 교회 헌금 봉지 단 하나(*)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만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다.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모든 별들이

질서 있게 운행하고 무생명에서 아베라는 생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 사람이 된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 (*)

사람들은 거짓말이 크면 클 수록 잘 믿고 반복하면 반복할 수록 잘 믿는다.

오늘 한 번 집에 가서 대폭발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고 나로부터 1,000대쯤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였을까 생각해 보기 바란다. (*)

햇빛을 오랫동안 받고 바람을 쐬고 비를 맞으면 돌덩어리가 아베마라는 생명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뇌가 없는 사람들이다.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물질, 에너지, 공간을 창조하심 (*)

창1:21,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과연 어느 것이 과학적인가?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특히 그분은 단지 말씀만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되 단 6일 만에 - 여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의 하루를 뜻함 -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무한한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를 믿지 않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창1; 출20:11; 31:17). 그래서 교회가 안 되고 있다. 창세기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대로 믿으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재산권, 양심, 언론, 주거 이전의 자유 등

사람이 만든 제도라 다 부작용이 있지만 미국에서 처음 시도하고 발전시킨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 성경과 기독교와 대척점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좌익이라면 이미 그것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어렵다.

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지켜야 한다.

새로 온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거나'를 느껴야 한다.

특히 교회의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귀를 찢는 듯한 록 음악, 댄스 음악, 힙합 음악 등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저질의 세상 음악이다.

이런 음악에 심취하면 사람의 영과 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천 유행가에 해당하는 CCM도 잘 분별해야 한다. 대부분의 CCM이 가사만 기독교의 틀을 유지할 뿐 실제 음악 자체는 세상의 유행가와 같다(삼상16:14-23; 고전14:33; 엡5:19).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곳이다.

교회는 무엇보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흉악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음악을 통해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신6:3-9; 엡6:4).

다수의 교회들이 락 음악만 가르치고 있다. 찬송과 성경을 안 가르친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연합을 피해야 한다.

천주교회, 몰몬 교회, 안식교회 등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복음을 무력화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불경건한 연합체'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에 따라 이제는 전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는 배교 행위도 교계에서 버젓이 심심찮게 벌어지며 그 내용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요14:6; 행4:12; 롬16:17-18; 엡5:11-12; 살후2:9-12).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만 배타적이다. 가짜는 양보하고 타협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외쳐야 한다

앞으로 이 땅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철권통치가 이루어지는 7년 환난기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은 이 7년 환난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휴거를 받는다.

많은 교회들이 환난기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환난 통과설’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행위를 더하려는 시도에 다름없다(살전4:13-18; 5:9; 살후2:1-12; 계3:10).

교회는 감정 중심이 아니라 상식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자신의 뜻에 따라 성도를 고쳐 주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신유(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성경에 등장하는 은사들 - 병 고침, 방언, 방언 통역 등 - 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신약 성경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다. 지금은 없다. 이빨이 금니로 변하고 금가루가 날리며 무질서한 가운데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은 성령 체험이나 영적인 은사가 아니다. 마귀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육적인 현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순절 은사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후로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하며 인격적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전14:23-33; 갈5:22-23; 엡5:18).

교회는 올바른 성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하는 개역(개정)성경과 NIV, NASB 등은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1% 소수 사본 본문)에서 나온 천주교 계열 성경이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보존해 주신 공인(共認) 본문(99% 다수 사본 본문)에 근거한 성경만을 썼다.

이 성경들 중에서 1611년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온 세상의 대부분 국가에서 번역되고 읽혀온 순수한 성경이다.

이 성경에는 개역(개정)성경에서 ‘없음’으로 표기된 구절이 전혀 없다(마17:21; 18:11; 23:14; 막 9:44, 46; 11:26; 15:28; 눅17:36; 23:17; 행8:37; 15:34; 28:29; 롬16:24).

바른 교과서 있어야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국가

결론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16:1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16:18)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남는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확고한 성경과 베드로의 믿음 고백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로 남기를 간절히 원한다.